

변해야 할 것, 그리고 변하지 않아야 할 것

올해로 한농연이 창립 20주년이 됩니다. 1987년 12월 5일,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전후협)를 만든 후, 결코 짧지만은 않은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한농연 수첩에 있는 창립선언문과 강령을 찬찬히 읽었습니다. 12만 한농연 회원과 농민의 권익을 지키고자 쉽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농업의 현실은 20년 전 창립선언문을 쓸 당시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1987년 당시에 1천만에 달하던 농민이 이제는 350만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문에 우리 농업의 위기가 닥쳤다고 했는데, 이제는 한-미 FTA로도 모자라 한-EU(유럽연합), 한-중 FTA가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산천이 다 바뀔다지만, 우리네 세상은 정신없이 변해 왔습니다. 저나 회원 여러분들의 농사짓고 살아가는 모습도 한농연 20년 역사 속에서 많이 변했습니다. 단순히 대정부·대정치권 투쟁만으로는 농민운동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한농연 회원들이 일심단결하여 농업을 앞장서서 바꿔내는 새로운 농민운동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말씀처럼 변치 못할 생명창고의 열쇠를 지키고 가꾸는 일 또한 우리 12만 한농연 회원과 350만 농민의 몫입니다. 이것 때문에 농민운동, 농권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땀과 노력의 대가만큼 농민이 대접받고 살아가는 세상,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애용하며 미래 생명산업인 농업을 개척해 나가는 일, 우리 한농연 12만 회원들부터 적극 나서야 할 시급한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변해야 할 것, 그리고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한 번, 한농연의 창립선언문과 강령을 생각해 봅니다. 20년 전 한농연 회원들의 당찬 결의와 실천의 노력, 쉽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잃어버려서는 안될 소중한 가치입니다. 6월 20일 서울광장에서 건강 한 모습으로 회원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